Journal of Fashion Business
Vol. 6, No. 5, pp.72~86(2002)

現代패션에 나타난 코르셋룩의 디자인 分析

崔 京 姬
湖南大學校 衣裳디자인學科 專任講師

An Analysis on the Design Analysis of Corset Look in Modern Fashion

Choi, Kyung-Hee
Full-time Lecture, Dept. of Fashion Design, Honam University

Abstract

Recently the fashion design has been expressed mixing trend of antipodal concept. There are shown disorganization of existing standard with eclectism, pursued more sensational fashion by the sense of unease. And there are spreaded body exposure in producing on a commercial scale for sex, are shown the phenomenon by wearing innovation inner-wear in private area are exposed out.

The purpose of this study are to consider preponderantly the fashion design using corset, shown up as the motive of costume design from 1990's to 2002's, define the character of molding. and extend the width of understanding of modern fashion.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1. The trend of deconstructionism as one line of fashion world in the 1990's make into outer garment of inner-wear, corset has been using the main item of infra costume. The past corset was existed inner-wear, but it is revived various forms by transforming outer garment of body expression consciously.
2. Corset look is shown double faced factory of the beauty of tradition and decadence, vulgarity and nobility, concealment and exposure, and are expressed boldly the free consciousness outer about woman's sex with the improvement of woman's social position.
3. The molding character of Corset look divided Eroticism, Fetishism, Deconstructionism. Futurism.

The trend of Corset look design is the emphasized sexual part of lace-up and cutting line of corset, and various details of see-through, kitsch, glitter look.

Therefore, the trend of Corset look will be applied the modern fashion and used as motif of new design, affected the inspiration of more developed design with grafting of up-to-date fabrics and processing technique

Key words: corset(코르셋), corset look(코르셋룩), deconstructionism(해체주의), outer of innerwear(속옷의 겉옷화)

I. 서 론

최근의 패션디자인은 상반된 개념의 트랜드가 혼재하는 가운데, 절충주의와 함께 기존의 규범에 대한 해체의 양상으로 나타나고 세기말적인 경향에 따른 현실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좀 더 자극적인 패션을 추구하고 있다. 성의 상품화에 따른 신체노출이 확대되고, 착장의 변혁을 가져와 개인적인 영역의 속옷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자연스러움과 편리성을 강조한 슬립드레스(slip dress), 란제리룩(lingerie look) 등을 위시하여 패션 전반에 속옷 스타일의 겉옷을 선호하는 경향이 늘어가고 있다.

이는 현대여성들의 사회적인 지위향상과 아울러 여성들의 성에 대한 자유의식이 외부로 대담하게 표출되어져 개방적 의식이 당당하게 표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성의 속옷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여성을 구속해 온 코르셋은 허리를 조이고 몸매를 강조하는 의복으로서, 신체적 압박과 에로틱한 표현 수단으로써 착용되어졌다. 단순히 허리만을 잘록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가슴과 힙을 도발적으로 강조함에 따라 성적인 부분들이 더욱 강조되면서 여성의 성적 특성을 시각적, 촉각적 그리고 심리적으로 강하게 어필해주는 기능을 갖는다.[1)]

현대패션에서의 성적 위선을 거부하는 경향이 증가함에 따라 페티시한 의복들이 표면화되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코르셋룩은 성의 상품화 수단으로서 해석되어져 왔으며 한편 에로틱한 표현수단으로서 사용되어왔다.

이처럼 현대 패션에서의 코르셋룩은 여성의 성적 매력을 표출하려는 욕구와 패션 디자이너들의 독창적인 감각, 신소재의 개발, 장식적 모티브의 조화로 인해 더 이상 속옷의 기능만이 아니라 당당하게 겉옷으로서 컬렉션에서 많이 보여지면서 코르셋룩은 하나의 유행 경향으로 받아들여졌다. 이로 인해 이제까지의 속옷의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이라는 공간에 따른 복식의 차별은 점점 없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코르셋룩의 유행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언더웨어로서의 코르셋에 관한 이론적 문헌연구나 코르셋을 이용한 디자인개발 연구 그리고 속옷의 겉옷화 현상에 따르는 여러 예술사조에 관한 부분적인 분석에 국한되어 있어 이에 대한 통합적이고 전문적인 연구가 더욱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대 여성복식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코르셋룩을 연구하고 속옷의 겉옷화 현상과 코르셋룩에 내재된 표현 가치를 규명하는데 그 의의를 두고 코르셋룩의 디자인 특성을 밝히고 여기에 내재된 조형의지를 고찰하여 현대패션에 대한 독창적인 디자인 개발에 도움을 주고 이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방법은 코르셋와 관련된 전문서적, 연구논문 등 문헌자료를 중심으로 역사적 고찰과 기능 및 종류, 코르셋룩의 개념 등 이론적 배경을 살펴본 후, 코르셋룩이 복식 디자인의 모티브로 등장하기 시작한 1990년대를 중심으로 2002년까지의 각종 콜렉션에 발표된 여성복을 중심으로 디자이너의 작품들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코르셋과 코르셋룩의 개념

코르셋(corset)이란 가슴부터 허리에 걸쳐 체형, 특히 몸통을 가늘고 아름답게 다듬기 위한 여성용 속옷이다. 속옷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여성을 구속해왔으며, 16세기부터 20세기에 걸쳐 일반화 되었다. 코르셋은 여성의 자연스러운 체형과 육체의 쾌적함을 제한하지만, 동시에 성 기관이 손상되는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성적인 매력을 강조하는 형태로 발전되어왔다.

코르셋이란 명칭은 시대와 나라에 따라 달라서 중세시대에는 꼬르싸아주(Corsage), 르네상스 시대에는 바스킨(Basquine), 또는 꼬르삐께(Corps-piqué)로 불리웠고, 17세기에는 형태가 약간 변하면서 명칭도 변화되어 꼬르발레네(Corps-baleiné)로 불리웠다. 그러다가 18세기 이후 영국에서 코르셋이란 명칭으로서 남녀 모두 착용되었다.[2)]

특히 1890년경에는 코르셋에 의해 가능했던 S자형이 유행하였으며, 그 후 신축성있는 신소재가 개발되고 자연스런 실루엣을 추구하는 경향으로 패션이 진보됨에 따라 과거의 코르셋은 사라지고 현재는 거들(girdle)이나 웨이스트니퍼(waist-nipper)가 코르셋을 대신하게 되었다.

한편 코르셋룩(Corset look)은 코르셋을 액센트로 하는 여성스런 스타일을 말한다. 코르셋이라 해도 속옷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겉옷으로 디자인된 코르셋

과 같은 모양의 일종으로 코르셋이 가진 본래의 기능 뿐만 아니라 겉옷으로서 디자인되어진 코르셋과 같은 모양을 일컫는다.[3]

1993년 4월부터 8월까지 뉴욕의 메트로폴리탄(Metropolitan) 박물관에서 속옷의 역사와 그 현대적 의미를 재고해 보는 전시회인 'Infra Apparel'이 개최되었는데, 복식에 있어서의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양분화가 현대에 와서 현저히 붕괴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4] 이와 같은 속옷의 겉옷화 현상은 브래지어(brassiere), 슬립(slip), 가터 밸트(garter belt) 등의 란제리(lingerie)를 비롯하여 코르셋(corset), 페티코트(petticoat) 등을 겉옷으로 변형하여 복식 영역간의 크로스오버(crossover)를 시도하여 의외성을 나타내며 다양하게 시도되어지고 있다.[5]

현대패션에서의 코르셋룩은 장 폴 골티에(Jean-paul Gautier), 크리스챤 라크르와(Christian Lacroix), 티에리 뮈글러(Thierry Mugler), 비비안 웨스트우드(Vivienne Westwood), 상탈 토마스(Chantal Thomas) 등의 디자이너들에 의해 콜렉션에서 자주 선보임에 따라 유행을 하게 되었다.

코르셋룩에서 나타난 스타일은 인체를 졸라매어 압박을 가해 형태 변형을 초래하는 타이트레이스드 코르셋(tight-laced corset)과 복식사에서 보여지고 있는 과거의 코르셋을 그대로 재현하는 경우와 코르셋의 라인만을 모티브로 이질적인 소재를 사용해서 본래 기능과 다른 스타일로 크게 구분되어지며, 이들은 다양한 소재와 참신한 아이디어로 현대패션에서의 새로운 디자인의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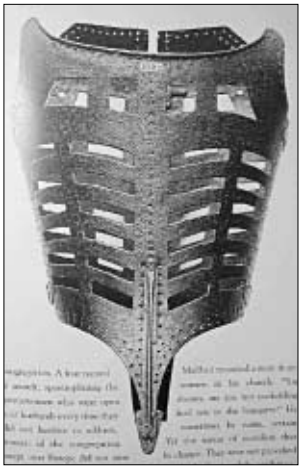
2. 코르셋의 사적 고찰

코르셋은 인간이 살아온 문명만큼이나 아주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고대에는 주술적이 면에서 착용되어졌고, 중세부터는 미적인 의미로 착용되었다.

코르셋의 기원은 기원전 1500년 경의 크레타 문명에서 찾아 볼 수 있고,(그림 1) 크리트와 미케네, 앗시리아, 이집트와 같은 초창기 문명의 조각품이나 도자기에서도 코르셋을 입은 여성들이 자주 묘사된다. 남녀 모두 허리를 극도로 가늘게 조이기 위해 가죽이나 금속으로 된 코르셋 벨트를 사용하였으며, 허리가 굵어지지 않도록 어릴 때부터 코르셋 벨트를 착용하였다.[6]

로마인들은 정복을 과시하기 위한 노예 지배의 의미로써 노예들에게 타이트레이싱(tight-lacing)을 시켰으

<그림 1> 고대 미노아 여신상 B.C 1,600년 「Support and Seduction」 p. 10.



<그림 2> 철제 코르셋, 1590. 「Support and Seduction」 p. 27.

<그림 3> 코르셋으로 강조된 개미허리, 1893. 「A History of Lingerie」 p. 59.

<그림 4> 아워글래스 실루엣의 댄디, 1820년경 「페티시즘」 p. 88.

<그림 5> 의학적으로 개량된 코르셋, 1890. 「A History of Lingerie」 p. 82.

<그림 6> 19세기의 아워글래스 실루엣 「Support and Seduction」 p. 47.

며, 이는 자기의 주인에 대한 복종과 낮은 지위를 나타내는 것이었다. 또한 기독교의 광신자들은 참회의 의미로서 허리가 잘릴 정도까지 로프로 꽉 조였다. 특히 가는 허리가 요구되었던 중세이후에는 각 시대의 다양한 패션 양식의 변화와 함께 많은 변천을 보였다. 14세기 경 몸에 꼭 끼고 앞이 트이지 않은 조끼 스타일의 꼬르싸아주(Corsage)를 코르셋의 전신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중세에는 인체의 자연스런 곡선을 중시했으므로 신체 교정을 목적으로 한 타이트한 코르셋류는 16세기 후반 르네상스 시대부터 발달하기 시작한 것으로 간주된다. 본격적인 코르셋은 1577년 경에 나타나서 18세기까지 여성들의 허리를 조이는 필수품으로 자리잡았다.

16세기 이래 금속 코르셋(그림 2)으로부터 차차 개량되어 18세기 말에 이르러서는 허리를 가늘게 보이게 하는 효과와 입어서 편안함을 겸할 수 있는 구성기술에까지 발달했다.

이러한 코르셋의 유행은 18세기까지 지속되다가 프랑스 대혁명을 계기로 한동안 주춤하였다. 빅토리아 여왕 시대(1837~1901)에는 코르셋의 전성기를 맞이하여 억압적인 사회 분위기를 대변이라도 하듯 타이트한 코르셋으로 인한 고통이 여성들의 정신과 육체를 한없이 구속하였다. 숙녀인 체 얌전빼는 위선이 최고에 달했던 이 시대는 코르셋이 사회적으로 인정받았던 성적인 자기 자극의 한 방법으로 착용되었고, 허리를 가늘게 하기 위해서 맨 아래 늑골을 제거하는 성형수술이 유행하여 이상적인 허리가 14내지 15인치였던 개미허리(Wasp-waist)의 전성시대였다.(그림 3)

한편 남성들의 경우, 크리트나 몇몇 고대 문명권에서 코르셋을 착용했던 것 외에도 19세기의 댄디들은 아워글래스 스타일의 유행에 따른 타이트한 코르셋을 입었다.(사진 4) 또한 직립자세를 목적으로 했던 군대용 코르셋, 사냥용 코르셋, 그리고 비만 체형이나 척추교정용 등 다양한 남성용 코르셋이 이용되었다.[7]

19세기말 코르셋에 대한 의사들의 공격에 대항하여 의학적으로 개량된 코르셋이 나왔다.(그림 5) 또한 '건강 코르셋'이라고 불리웠던 복부에 바스크를 댄 코르셋이 나왔는데, 이를 장기간 착용할 경우 장기손상은 물론 척추만곡과 등 근육의 무력화로 인하여 코르셋이 없이는 생활할 수 없는 악순환을 초래하였다. 이는 20세기 초까지 유행하여 아르누보 스타일의 실루엣을 형성시켜 주었다.[8](그림 6)

그 후 타이트한 허리는 패션에 있어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점차로 사라지게 되었고, 여성들의 지위향상

과 사회진출로 인하여 변형되었던 신체는 자연스런 체형으로 대체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실루엣도 오래가지 못하고 1947년 크리스챤 디올이 뉴 룩(New Look)을 발표함에 따라 여성적인 곡선미가 부활되어 코르셋이 다시 대유행하였다.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코르셋은 조이는 범위와 강도를 달리하여 착용되고 있으며 신체 조형을 위한 대표적인 인체 속박형 의복으로 간주되고 있다. 현재는 코르셋에 의해 강제로 왜곡되고 변형된 인공적인 인체미 대신, 신체의 곡선을 저해하지 않고 자연스런 실루엣을 추구하는 경향으로 패션이 진보됨에 따라 과거의 코르셋은 사라지게 되었다.

3. 코르셋의 기능과 종류

코르셋은 신체 보호나 기능성을 목적으로 착용되거나 신분의 표현, 미적 표출이나 이성을 유혹하기 위한 수단으로 착용되었고, 허리를 조인다는 기능적인 목적이나 과시의 목적 뿐만 아니라 정숙성을 내세운 성적 표출의 기능을 보다 강하게 나타내었다.

코르셋 열광자들의 우상이자 신체변형의 이론 및 실천가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퍼키어 무사파(Fakir Musafar)는 오늘날 코르셋을 착용하는 사람들을 '코르셋 비신봉자들(corset nonconfomist)' 로서 단지 신체교정을 목적으로 코르셋을 착용하는 부류와 '코르셋 신봉자들(corset identification)' 로서 코르셋을 여성성과 동일시하여 코르셋을 착용함으로써 성전환된 느낌을 가진 복장도착자들의 부류와 '코르셋 마조히스트들(corset masochists)' 로서 에로틱한 고통을 음미하기 위해서 광적인 열정을 가지고 코르셋을 착용하는 부류로 구분하였다.[9]

형태별로는 19세기에 많이 사용되었던 '평범한 코르셋류' 와 가학 피학성 변태성욕과 관련된 '페티시한 타이트레이스드 코르셋(tight-laced corset)' 의 두 종류로 구별된다. 코르셋은 여성을 비활동적인 상태로 만들었지만 그 자체가 또 하나의 미덕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즉 코르셋을 착용한 여성들은 심리적으로 나약하고 의존적인 성향이었고, 이것이 정숙한 요조숙녀의 표본으로 인식되었다.

여성의 코르셋은 가장 먼저 생긴 제조업 품목 중 하나였으며 다양한 형태의 특수 코르셋들도 있었다. 골제 코르셋, 몸을 여위게 하는 코르셋, 수영용 코르셋, 임산부용과 수유용 코르셋, 신부용 코르셋, 하절기용 코르셋, 건강 코르셋, 비만이나 불규칙한 생활에서 오는 질병들을 조절하기 위한 코르셋 등 매우 다양하게 발달했다. 또한 신체 보호 및 건강을 위해 사용된 1880년에 스코트(Dr. Scott)에 의해 소개된 '전기코르셋(electric corset)' 은 여성 유기체에 특별한 힘을 가하여 중풍, 류마티즘, 척추병, 변비, 손상된 순환기 등 다양한 병치료를 보장하는 기구로서 착용되었다.[10]

코르셋은 여성들 뿐만 아니라 남성들에게도 입혀졌는데, 특히 1820년경 남성들은 새로 유행한 아워글래스형의 댄디가 되기 위해 스테이(stsys)와 고래뼈 등의 골제 레이스-업(laced-up)코르셋을 착용하였다. 또한 1840년대에는 '파우터 피전룩(Pouter-pigeon look)' 을 얻기 위해 복부 코르셋을 착용하였고, 승마와 같은 스포츠와 등뼈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코르셋을 착용하였다. 그 외에도 남성들은 건강상의 목적으로 척추교정이나 비만 치료를 위해 특수한 용도의 코르셋을 착용하였다. 또한 매우 많은 러시아의 장교들이 꼿꼿하게 직립하기 위해 긴 길이의 군대용 코르셋을 착용했을 뿐만 아니라, 비엔나 군인들은 완벽하고 매끄러운 유니폼의 착용을 위해 기다란 강철의 코르셋을 착용하기도 했다. 현대에 와서까지도 사용되고 있는 탈장방지용도의 운동용 코르셋인 남성용 체중벨트(weight-belt)는 군인 코르셋의 직접적인 계승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코르셋은 성인 뿐 만 아니라 소년, 소녀에게도 입혀졌는데, 빅토리아 시대에는 남녀 어린이들에게 체벌과 훈련을 목적으로 코르셋을 착용시켜 아동 성학대의 형태로까지 코르셋이 사용되기도 했다.[11]

이와 같이 코르셋은 짧은 시대에 걸쳐 다양한 착용동기와 목적에 의해 착용되어졌고 현대에 이르기까지 속옷 아이템 뿐만 아니라 패션의 한 아이템으로 사용되었다. 또한 사회의 미의식과도 관련이 있어 시대가 요구하는 이상적인 조형성에 접근하기 위해 인체의 형태가 변형될 정도의 보정용 속옷으로 착용되어졌다.

<표 1> 코르셋의 시대별 종류

(참조: 페티시즘, 이의정, p. 124)

시기 \ 착용자	여성	남성	어린이	페티시스트
크리트	· 코르셋벨트(corset belt)	· 코르셋벨트		
14~15C	· 코르싸아쥬(corsage)	· 코르셋 · 코르셋벨트		
16C~18C	· 바스킨(basquine) · 꼬르삐케(corpspiqué) · 꼬르바렌느(corpsbaleine)			
19C	· 타이트레이스드 코르셋 · 건강코르셋 · 비만방지용 코르셋 · 목욕용 코르셋 · 수영용 코르셋 · 신부용 코르셋 · 임산부용 코르셋 · 하절기용 코르셋	· 댄디의 아워글래스 실루엣 코르셋 · 군대용 코르셋 · 사냥용 코르셋 · 운동용 코르셋 · 비만방지용 코르셋 · 페니스 코르셋	· 체벌용 코르셋 · 자세교정용 코르셋 · 척추교정용 코르셋	· 복장도착자 (크로스드레서)의 코르셋 · 마조히스트 (masochists)의 코르셋
20C	· 코르셋레뜨(corsetlette) · 웨이스트신취(waistcincher) · 바스띠에(bastier)			

III. 현대패션에 나타난 코르셋룩 디자인 분석

1. 코르셋룩의 시대적 배경

20세기 후반에 들어 포스트모더니즘 시대가 도래하면서 새로운 창조는 더 이상 없다고 하는 사고 아래, 과거에 존재했던 모든 양식을 모방하는 경향이 팽배해지면서 현대패션은 역사라는 외적 조형성을 차용하고 내적인 미적 가치를 표출하여 의복이라는 조형요소로의 구현을 이루어왔다. 최근 패션에서의 코르셋 부활은 관능성에 관한 의복의 내적 인식과 역사주의에 의한 것으로, 현대패션은 복식에서의 양면가치에서 비롯된 다양성을 추구함으로써 다양하고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되었다. 디자인의 기술과 감성, 이성과 반(反)이성, 안과 밖, 첨단과학과 신비, 남과 여 등 양극적 요소들의 융합으로 기존의 가치 기준을 파괴하여 기존 질서를 무시하는 반패션(anti-fashion) 즉 우아한 고전적인 미에만 의존하지 않고 개성적이고 기괴한 것, 흥미로운 것, 희극적인 것도 복식의 매력을 창출할 수 있다는 미의식의 전환이 이루어져 왔다.

신체 조형은 관능적인 것에 대한 문화적 인식에 연관되어 있어 최근의 코르셋의 부활은 의상의 내적 인식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역사주의, 그리고 표현주의 예술에 있어서의 자유주의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다.

속옷의 겉옷으로의 전위는 의상을 파괴시켜 미완성을 향한 입은 듯하면서 무언가 완전치 못한 파괴와 해체적 의미로 이해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미완성의 해체적인 미는 퇴폐미로 간주되며 시대 착오적인 코르셋을 재치있는 유쾌함으로 전위시켜 유용하고 있다. 이처럼 속옷의 겉옷화 현상은 노출과 은폐, 정숙성과 비정숙성이라는 양면감정의 범주가 동시에 발생한 현상으로서 은폐되어야 할 부분이 전면적으로 노출되는 것으로, 파괴와 혼돈이라는 해체주의에 바탕을 둔 세기말적 해체주의 복식의 대표적인 현상으로서, 브래지어, 거들, 가터 벨트, 코르셋 등의 속옷이 일상복으로 접목되어 이전에는 속옷으로 존재하던 것이 의식적으

로 신체 표현에 드러나 겉옷으로 변형되어 나타나고 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코르셋은 인프라 의상의 주된 아이템으로 사용되므로써 복식에 섹슈얼리티를 부여함과 동시에 복식 영역의 붕괴를 초래하고 노출과 은폐, 정숙성과 비정숙성, 퇴폐와 고상함의 경계를 해체시키고 있다.

현실에 대한 불안감은 좀 더 자극적인 패션을 추구하게 되었고 성을 상품화하여 신체노출이 확대되고 착장의 변혁으로 개인적인 영역의 속옷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배경 위에 코르셋 룩은 90년대 이후 장 폴 골티에(Jean Paul Gautier), 크리스챤 라크르와(Christian lacroix), 티에리 뮈글러(Thierry Mugler), 비비안 웨스트우드(Vivienne Westwood), 상탈 토마스(Chantal Thomas) 등의 디자이너들에 의해 콜렉션에서 자주 선보이고 있다. 특히 가수 마돈나는 1990년에 장 폴 콜티에가 디자인한 'Like a Virgin'이란 명칭의 코르셋 룩(그림 8)을 입고 나타남으로써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는데[12], 이를 계기로 속옷같은 겉옷, 겉옷 위에 입는 속옷 등 일상복과 속옷이 믹스된 스타일이 계속해서 디자이너들의 콜렉션을 통해 발표되면서 속옷류는 더 이상 속옷이 아닌 하나의 완벽한 패션 스타일로서 인식되었다.

2. 코르셋룩 디자인의 외적분석

1) 디자인

현대패션에 나타난 코르셋룩에서의 디자인을 살펴보면 전통미와 퇴폐미, 저속함과 고상함, 은폐와 노출이라는 양면적인 현상을 보이며, 현대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과 아울러 여성의 성에 대한 자유의식을 대담하게 표현하고, 성별이나 페티시즘, 육체나 심리적 억압과 만족 등의 관습적인 문제와 보이지 않는 연관을 가진다. 이와 같은 현상은 현대인들의 속옷에 대한 시대 착오성과 변용과 전위로 인한 의외성 그리고 은밀함을 부여하려는 표현주의적 성향으로 나타나며, 육체의 자유에 대한 본능적 상징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속옷의 겉옷화 즉, 인프라 현상은 사적 영역인 속옷과 공적 영역인 겉옷의 경계를 허물은 해체주의 패션의 대표적인 외적 표현이다.

현대패션에 나타난 코르셋룩에서의 디자인으로는 코르셋의 형태구성상 필요한 디테일인 레이스 업(lace-up)과 와이어(wire)나 패딩(padding), 파이핑(piping)을 이용해 코르셋의 형태와 절개선을 표현한 라인(line)을 응용한 디테일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코르셋의 레이스 업을 응용한 디자인은 몸판의 앞,

<그림 7> 타이트 레이시드 코르셋, 1937.
「Vogue 1997. 3」

<그림 8> 마돈나의 코르셋, 장 폴 골티에, 1990.
「인프라 의상」, p. 51.

<그림 9> 속옷의 겉옷화, 안나 수이, 2000 S/S,
「Collections」 p. 117.

〈그림 10〉 코르셋의 선을 살린 데님 코르셋룩, 장 폴 골티에, '02 S/S, 「Haute Couture」, p. 86

〈그림 11〉 지퍼 장식의 코르셋룩, 1997 A/W, 비비안 웨스트우드, 「Visions of The Body」 p. 107.

〈그림 12〉 외과 교정을 연상케하는 코르셋룩, 1998, 후세인 카라얀, 「The Corset」, p. 174.

뒤, 허리, 다트 등의 다양한 위치에 디테일로서 타이트 레이싱을 장식함으로써 속박의 이미지와 더불어 성적 부위를 더욱 강조하고, 인체가 타이트하게 조여지는 느낌을 전달하며 허리를 가늘게 조여주고 가슴을 받쳐 올려 더욱 에로틱한 이미지를 전달한다.

〈그림 9〉은 안나 수이의 작품으로 에로틱함을 강조하기 위해 서로 다른 색상으로 배색 처리하고 타이트 레이싱 방법으로 착용한 코르셋룩이다. 여성의 신체를 압박했던 코르셋룩에 부착된 타이트드레싱은 장 폴 골티에 뿐만 아니라 베르사체, 존 갈리아노, 비비안 웨스트우드, 티에리 뮈글러 등의 작품에서도 흔히 사용되는 것으로 의복 구조를 뚫어 신체를 노출시키거나 코르셋에 의해 억압된 신체 윤곽선으로 패티시즘적 에로티시즘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10〉은 장 폴 골티에의 작품으로 코르셋의 라인에서 영감을 받아 데님 소재의 선 잇기와 올풀기 기법으로 과거의 코르셋 디자인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이다.

〈그림 11〉은 비비안 웨스트우드의 작품으로 과거의 코르셋의 형태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지퍼 디테일과 가터 벨트 장식으로 섹시함을 강조한 해체주의적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다. 또한 많은 현대 디자이너들은 퀼팅(quilting), 패딩(padding) 소재를 이용하여 심플한 탑의 형태에 와이어로 코르셋 라인을 두드러지게 표현하거나, 바탕 천의 대비되는 색상으로 장식선과 함께 색상 매치를 하여 코르셋 절개 라인을 표현하는 등 매우 다양한 디자인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 외에도 과거의 건강과 치료를 위한 코르셋에서 영감을 받아 이를 새로운 감각으로서 재해석한 독특한 코르셋룩 디자인도 선보이고 있다. 〈그림 12〉는 후세인 카라얀의 디자인으로 가죽과 금속소재의 효과적인 매치와 타이트 레이싱과 퀼팅 기법을 새롭게 구성하여 외과적 교정치료의 이미지를 나타내었고, 알렉산더 맥퀸은 보철을 연상케하는 코르셋룩으로 레이스 업 디테일을 이용한 비대칭 디자인을 선보였다.(그림 13)

2) 소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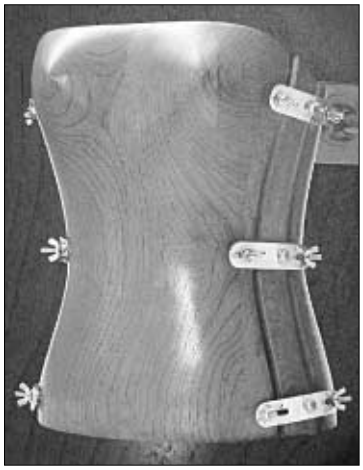
현대패션에 나타난 코르셋룩을 살펴보면 과거에서부터 코르셋에 사용되어온 새틴, 레이스 등의 전통적인 소재 뿐만 아니라 신기술에 의한 새로운 소재 등이 다채롭게 사용되었는데, 이는 코르셋이 겉옷으로 차용되면서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이미지를 주기 위해 더욱 소재의 차별화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데님, 고무, 플라스틱, 비닐, 나무, 금속, 코팅소재, 라이크라, 몰딩소재 등 매우 다양한 소재들이 사용되면서 이에 따른 독창적인 코르셋룩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림 13> 보철을 연상케 하는 코르셋룩, 1999, 알렉산더 맥퀸, 「The Corset」, p. 175.

<그림 14> 레이스 업의 퀼팅 코르셋룩 , 1997. 「The Corset」 p. 171.

<그림 15> 가죽을 이용한 코르셋룩, 카르뱅, '02-'03 A/W, 「Haute Couture」 p. 94.

<그림 16> 몰딩에 의한 플라스틱 바디, 1980, 잇세이 미야께, 1980. 「The Visions of The Body」, p. 19.



<그림 17> 나무와 철로 만든 코르셋룩, 1995 A/W, 후세인 카라얀, 「Visions of The Body」, p. 20

<그림 18> 비즈로 된 이국적 코르셋룩, 1997, 존 갈리아노, 「The Corset」, p. 173.

〈그림 14〉은 크리스티앙 라크르와의 작품으로서 전통적인 코르셋에서 주로 사용되었던 퀼팅 장식의 광택감있는 새틴소재를 사용하여 레이스 업 디테일의 에로틱하면서도 엘레강스한 멋을 추구하고 있다. 그 외에도 시스루 소재인 망사, 레이스 등이 주로 사용되어져 이를 이용한 디자인에는 코르셋의 형태와 라인을 재현하고 인체미를 표현하기 위한 와이어의 사용과 장식적 라인만을 사용해 시스루 소재와의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에로틱한 이미지를 표현하기도 한다.

한편 라텍스, 라이크라, 고무 등 스트레치성의 신소재를 사용하여 미래주의적인 바디 컨셔스룩(body-conscious look)을 표현하기도 한다. 〈그림 15〉은 카르뱅(Carven)의 작품으로써 가죽을 사용해 바디 컨셔스룩을 나타냈으며, 코르셋의 라인을 응용해 섹시하면서

도 모던한 감각을 보여준다. 비닐 코팅소재, 에나멜, 금속성 소재와 같은 인공소재를 사용하여 보다 관능적인 스타일을 추구하는 디자인은 페티쉬한 이미지를 나타내는 데 자주 사용되어 강하고 도발적인 느낌을 주기도 한다.

한편 창조적인 아이디어와 특수한 소재로 새로운 아트 웨어를 선보인 디자이너로는 잇세이 미야께, 후세인 카라얀, 존 갈리아노, 알렉산더 맥퀸, 존 갈리아노, 티에리 뮈글러, 지아니 베르사체 등이 있다. 〈그림 16〉는 잇세이 미야께의 작품으로 몰딩 기법의 플라스틱 소재를 이용하여 누드를 연상케하는 미래주의적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다. 〈그림 17〉은 후세인 카라얀의 작품으로 나무와 금속을 이용해 새로운 개념의 바디를 재인식하여 그만의 독특한 실험적인 미래주의를 표현하였다. 〈그림 18〉은 존 갈리아노의 작품으로 서아프리카의 딩카(Dinka)족에게서 영감을 얻어서 비즈로 만든 이국적인 코르셋룩이다. 또한 〈그림 19〉는 지아니 베르사체의 화려한 비즈로서 전체를 장식한 올인원 형태의 코르셋으로 유머러스한 키치룩을 표현하였다.

3) 착장 형태

19세기에 체형 보정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코르셋은 이제는 타인에게 보여주는 옷으로서 나타내어져 본래의 기능과는 반대로 겉으로 드러나는 패션 아이템이 되었고, 다양한 착장 형태로서 선보여지고 있다.

복식 조형에 있어서 변용과 전위에 의한 표현방법은 아주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 하나로 복종간의 위치와 용도변경에 의한 크로스오버(crossover)의 표현방법은 충격과 환상적 분위기를 자아낼 수 있는 것으로 현대패션에 있어서 대표적인 예로 속옷의 겉옷화를 들 수 있다.[13]

속옷과 겉옷의 영역간의 크로스오버 개념을 도입한 속옷의 겉옷화, 즉 인프라(infra) 현상은 사적 영역인 속옷과 공적 영역인 겉옷의 경계를 허물은 해체주의 복식의 대표적 표현 형식으로 퇴폐적인 저속함과 고상함을 동시에 표현하고 있다.

코르셋룩에서 보여지는 착장 형태를 구분하면 첫째, 속옷 형태 그 자체를 외의로 착용하는 것(그림 9, 14)과 둘째, 겉옷을 의도적으로 오픈하여 속옷을 의도적으로 노출하는 것(그림 11, 15)으로 이는 겉옷을 오픈하여 의도적으로 속옷을 드러내는 시도로 섹시함과 함께 성적 해방감을 느끼도록 한다. 또한 셋째, 소재나 형태에 변형을 가하여 이를 겉옷과 매치하여 더욱 대담함을 표출하고자 겉옷 위에 속옷을 착용하는 경우이다. 〈그림 20〉은 알렉산더 맥퀸의 작품으로 흰색의 평범한 스타일의 원피스 위에 가죽으로 된 속옷을 덧입는 방법으로, 코르셋에서 차용된 브래지어와 가터벨트를 덧입어 페티시하면서도 모던한 이미지의 소프트 밀리터리 스타일을 표현해주고 있다. 이는 속옷으로만 입혀지던 개념을 뒤바꿔 겉옷으로 입음으로서 그 자체만으로도 속물적이고 퇴폐적인 키치 패션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으며 새로운 착장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는 코르셋이나 가터 벨트가 지닌 본래의 기능에서 장식적인 요소로 변하는 예로서 고정관념을 깨뜨린 새로운 착장법으로 겉옷 위의 입은 속옷은 더 이상 속옷이 아니라 그 기능이 전이된 것을 볼 수 있으며, 이제는 겉옷과 속옷의 경계가 모호해져 서로의 구분이 불필요한 것을 알 수 있다.

Ⅳ. 현대패션에 나타난 코르셋룩 디자인의 내적 분석

1. 에로티시즘

에로티시즘(eroticism)이란 원래 그리어로 에로스(eros)에 어원을 두고 있는 말로써, 인간의 심리학적 개념으로 즉 성행위의 암시, 이미지 부여 혹은 표현시키는 것으로서,[14] 여성의 인체에 밀착되는 코르셋룩은 인체의 정확한 형태를 여실히 드러내어, 여체의 유연한 곡선을 드러내 줌으로써 에로티시즘을 유발시키거나 나타나게 된다.[15]

에로티시즘은 현대에 이르면서 차츰 유머라는 감각에 자주 호소함으로써 대중에게 성에 관한 감정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게 하고 본질적으로 지극히 인간적인 것에 감정을 이완시키며 현대의 물질 문명에 의해 소외당한 인간의 정서를 환기시켜 준다.[16]

현대패션의 다양한 흐름 중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그림 19> 비즈 장식의 코르셋룩, 지아니 베르사체, 1988. 「Vanitas」, p. 251.

<그림 20> 겉옷 위의 코르셋룩, 알렉산더 맥퀸, 20002 A/W, 「Collections」 p. 68

<그림 21> 에로틱한 코르셋룩, 티에리 뮈글러, '98-'99 A/W, 「Thierry Mugler」 p. 183.

<그림 22> 페시쉬한 코르셋룩, 미쉘 끄롱, 1996, 「A History of Lingerie」 p. 760

것의 하나가 새로운 인체 미학이나 에로티시즘의 표현을 들 수 있는데 코르셋룩은 에로티시즘을 표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아이템이 되고 있다.

90년대 이후부터 패션에 속옷의 겉옷화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코르셋룩은 더욱 섹시하게 에로티시즘을 강조하여 마치 겉옷과 같이 장식되거나 개성 표현과 자기과시 등 표현적 기능이 강조되고 있다. 많은 디자이너들에 의해 코르셋을 모티브로 한 의상이 발표되어 이브닝 드레스에서부터 일상복에 널리 입혀지고 있다. 강한 속박의 타이트 레이싱, 웨이스트 니퍼, 가터 벨트 등으로 성적 부분을 강조하는 의상들이 디자인의 한 모티브로서 사용되고, 또한 코르셋의 소재, 장식적 요소, 디테일 등이 패션에 응용되어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코르셋룩이 지닌 미적 가치는 이러한 성적인 부위를 드러내고자 하는 에로티시즘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현대 패션에서의 코르셋룩에 나타난 에로티시즘은 성에 대한 억압을 해체하고 성적 과시와 욕구의 분출 본능을 비판적 시각이나 유머감각을 보여주고 있다.(그림 21)

2. 페티시즘

페티시즘(fetishism)은 성적 대상을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신체의 일부 또는 특정한 사물에 대해 비정상적인 성적 애착을 느끼는 일종의 성도착(perversion)을 가리키며, '변태성욕' 또는 '성적 일탈(sexualdeviance)' 라고도 한다. 이는 비정상적 성적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서 성적 대상 또는 성적 행위에 대한 도착증세로 나타난다. 패션에서는 일반적으로 신체의 일부 특히 성기와 관련된 부분을 의복의 특정 아이템이나 보통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속옷 종류 등으로 인해 극단적 또는 성도착적으로 신체를 강조하거나 드러낸 상태를 말한다.[17]

현대패션에서의 코르셋룩은 페티시 패션에서 빼놓을 수 없는 대상이며 가장 중요한 테마이기도 하다. 페티시 패션에서의 코르셋룩은 가죽, 플라스틱, PVC, 고무 등의 특이한 소재가 사용되며, 망사 스타킹, 가터벨트, 꼭 끼는 부츠와 장갑 등과 코디네이트되어져 극단적인 신체강조를 통해 페티시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22〉은 미쉘 끄롱(Michel Coulon)의 금속 소재의 페티쉬한 코르셋룩으로 성적부위를 자극적으로 강조하면서 에로틱한 이미지를 더해 주고 있다.

원래 코르셋은 신체적 압박과 성의 상품화 수단으로서 해석되어져 왔으며, 한편으로는 에로틱한 표현 수단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더 나아가 여성들은 꼭 끼는 코르셋의 고통과 불편으로부터 에로틱한 대가를 즐겼고 남성들도 그러한 사실을 앎으로써 성적 흥분의 전율을 느꼈다.

코르셋 마조히스트(corset masochists)들은 에로틱한 고통을 음미하기 위해서 광적인 열정을 가지고 코르셋을 착용했다. 신체의 압박과 구속은 페티시 요소의 하나로서, 성적으로 극단적인 효과와 강한 이미지를 표출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현대여성이 자신의 섹슈얼리티에 책임을 진다는 것을 상징하며 소프트 페티시로서 공공연하게 즐길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한다.[18]

3. 해체주의

현대 패션에 나타난 해체주의(deconstructionism)는 노출, 파괴, 빈곤, 분해적 해체와 상호 텍스트성, 탈 현상, 불확실성 등의 원리에 의해 나타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속옷의 겉옷화로 나타나는 코르셋룩의 출현이다.

현대패션에 나타난 코르셋 디자인은 속옷의 겉옷화 현상과 함께 노출과 은폐, 정숙과 비정숙성, 퇴폐적인 저속함과 고상한 양면가치가 발생하는 세기말적 해체주의 복식을 보여주고 있다.

속옷의 겉옷화 현상은 공적 사적 영역의 경계가 붕괴되고 장르의 해체가 발생해 현대 누디즘(nudism)을 추구하는 경향과 함께, 복식의 양면 가치를 통해 새로운 미의 개념에 부합하면서 내적, 외적 해체를 보여주고 있다.

그 중에서도 속옷의 대표적인 형태인 코르셋은 겉옷의 개념으로 디자인되어져 인체의 부위를 강조하여 복식에 섹슈얼리티를 부여함으로써 복식 영역의 붕괴를 초래하고 노출과 은폐, 정숙성과 비정숙성, 퇴폐와 고상함의 경계를 해체시켰다. 〈그림 23〉은 장 폴 골티에의 작품으로 실크 타프타(tsffta)와 스판덱스(spandex), 고무 소재를 복합적으로 사용하고, 코르셋의 형태와 디테일을 응용하여 이를 겉옷화시킴으로서 현대패션에서의 해체주의적 경향을 나타내었다.

1993년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서 개최된 'Infra Apparel' 전의 Richard Martine & Harrold Koda는 '복식에 있어서 지적 모델인 해체는 응집성있는 전체 즉, 전존재성으로 존재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 자신 안에서 반대적인 구성요소를 식별하여 인공적으

〈그림 23〉 점프 수트, 장 폴 골티에, 1990. 「Visions of The Body」, p. 106.

〈그림 24〉 사이버 코르셋룩, 1992, 티에리 뮈글러, 「Thierry Mugler」 p. 19.

〈그림 25〉 미래주의 코르셋룩, 티에리 뮈글러, '95-'96 A/W, 「Thierry Mugler」 p. 76.

로 노출시키거나 외형을 흔란시킴으로서 파괴하거나 황폐화시키는 것' 이라 말함으로써 해체주의 복식이론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전체적으로 해체주의 성격은 의복의 구성적 규범에 대한 저항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19]

이처럼 속옷의 겉옷화 즉 인프라(Infra) 현상은 노출과 은폐, 정숙성과 미정숙성, 퇴폐적인 저속함과 고부가 양면가치가 동시에 발생하는 세기말적 해체주의 복식의 대표적 현상이라 할 수 있으며, 캐주얼 경향 혹은 무게있는 옷차림에서 해방되어 가벼운 옷차림을 즐기려는 욕망 즉, 기능성, 효율적인 합리성을 추구하면서 보고 듣는 즐거움을 표현하려는 데 기인한다.[20]

4. 미래주의

현대 패션디자인에 있어서 미래주의는 공상과학 영화와 우주복에서와 같이 미래를 이미지로 한 디자인으로 하이테크놀로지(high-technology)의 인공적인 소재를 많이 사용하며, 스페이스 룩(Space look), 코스모코어 룩(Cosmocorps look)이라고도 한다.[21]

현대 패션에서 보여지는 코르셋룩에서도 테크놀러지(technology)에 의한 신소재를 사용한 현대적인 감각의 표현을 실험정신을 통해 표현되어지는데, 비닐, 광택소재 뿐만 아니라 플라스틱, 금속, 와이어 등의 인공적인 소재를 사용해서 과학기술과 예술세계의 조화를 느끼게 하는 하이테크 감각의 새로운 디자인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 즉 과거 코르셋 형태에 신소재를 활용하여 보다 기능적이고 미래적인 이미지의 영감으로 표현되고 있다.

특히 메탈릭 패션을 사용하여 미래적 이미지를 자주 표현하는 티에르 뮈글러는 코르셋의 기본적 실루엣에 광택이 있는 비닐 소재를 사용해 과거 코르셋과 미래적인 요소를 조화시켜 사이버적인 느낌이 드는 디자인을 많이 선보이고 있다. 〈그림 24〉 또한 그는

<표 2> 현대 코르셋룩에 나타난 디자인의 특성

	이미지	표현기법	소재	대표 디자이너
에로티시즘	섹시(sexy) 엘레강스(elegance)	타이트 레이싱 (tight-lacing) 퀼팅(quilting) 라인 응용	시스루(see-through) 레이스(lace) 스판덱스 자수 쟈카드(jacqard) 광택소재	크리스티앙 라크르와 돌체 앤 가바나
페티시즘	펑크(punk)	타이트레이싱(tight-lacing) 가터벨트(gater belt)	코팅소재 가죽 PVC 고무	장 폴 골티에 티에르 뮈글러
해체주의	키치(kitch) 앤드로지너스 (androgynous)	이질적 소재의 매치 패치워크 과도한 장식(인조보석 등) 착장의 변화	가죽 데님(denim) 인조보석	장 폴 골티에 비비안 웨스트우드 알렉산더 맥퀸 지아니 베르사체
미래주의	사이버(cyber) 미니멀리즘(minimalism) 모던(modern)	몰딩 부착	금속 플라스틱 비닐 코팅소재 나무	티에르 뮈글러 잇세이 미야께 후세인 카라얀

코르셋의 올인원 형태에 강철소재의 기묘함을 느끼게 하는 강력한 미래형 로봇 슈트를 디자인했으며, 이 디자인은 인체 구조를 해부학적으로 분석하여 피부 표면감과 움직임의 반경까지 고려한 강철 바디 수트로 인조 인간 같은 인공미를 나타내었다.(그림 25) 실루엣을 인체에 밀착시켜 인체의 움직임을 보여주며 그 움직임에 따라 반사되는 빛의 효과로 금속성 소재의 차가움과 타이트하게 조여지는 허리선과 관능적 이미지를 제시하였다.

이처럼 첨단 소재과 가공기술이 접목되면서 과학적인 디자인으로 미래주의를 표현하는 디자이너는 티에리 뮈글러, 잇세이 미야께, 후세인 칼라얀, 존 갈리아노 등이다.

이와 같이 현대 패션에 나타난 크르셋룩의 디자인 특성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V. 결 론

본 논문은 1990년대의 해체주의적 경향과 세기말적인 경향이 결합되어진 복식디자인의 모티브로 자주 등장하는 코르셋을 활용한 패션 디자인을 중점적으로 고찰하여 속옷의 겉옷화에 따른 출현 배경과 코르셋룩의 디자인 분석을 통해 이에 내재된 조형의지를 밝히고 현대패션에 대한 독창적인 디자인 개발에 도움을 주고, 이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코르셋은 가슴부터 허리에 걸쳐 체형 특히 몸통을 가늘고 아름답게 다듬기 위한 여성용 속옷으로, 신체적 압박과 성의 상품화 수단으로 해석되었고, 에로틱한 표현수단으로서 착용되어졌다. 코르셋이란 이름이 사용된 것은 18세기 이후부터이고, 남녀 모두 착용했으며, 본격적인 코르셋은 1577년 경에 나타나서 18세기까지 여성들의 허리를 조이는 필수품으로 자리잡았다. 특히 1890년경 코르셋을 입는 것에 의해 가능했던 S자형이 여성에게 유행했으며, 그 후 신축성있는 소재가 개발되고 자연스런 실루엣을 추구하는 경향으로 패션이 진보됨에 따라 과거의 코르셋은 사라지게 되었다. 코르셋은 신체보호나 미적 기능성을 목적으로 착용되기도 했지만 성적 표출의 기능을 보다 강하게 나타내어, 페티시한 타이트레이스드 코르셋이 유행하였고, 그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특수 코르셋들이 개발되었다.

코르셋룩은 코르셋을 악센트로 한 여성다운 스타일을 뜻하며, 이러한 패션의 유행은 1993년 뉴욕의 메트로 폴리탄에서의 인프라 어패럴 전시를 통해 확실히 인식되어지면서 더욱 확산되어졌다. 1990년대 패션계의 큰 맥락 중의 하나인 해체주의적 경향은 속옷의 겉옷화 현상을 낳았고, 코르셋은 인프라 의상의 주된 아이템으로 사용되었는데 이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은 관능성에 대한 의복의 내적 인식과 역사주의, 해체주의적 표현에 의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현대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과 아울러 여성의 성에 대한 자유의식을 외부로 대담하게 표현한 것과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코르셋룩의 대표적인 현대디자이너로는 장 폴 골티에, 크리스챤 라크르와, 티에리 뮈글러, 비비안 웨스트우드, 돌체 앤 가바나, 알렉산더 맥퀸, 후세인 카라얀 등을 들 수 있다.

코르셋룩의 디자인으로는 전통미와 퇴폐미, 저속함과 고상함, 은폐와 노출이라는 양면적인 현상을 보이는 가운데, 속옷과 겉옷의 경계를 허물은 해체주의적 표현에 의해 나타났으며 이는 주로 코르셋에서의 레이스 업이나 라인을 이용하기도 하고 전통적인 코르셋에서의 소재 뿐만 아니라 신소재, 고무, 가죽, 금속 등 다양한 소재로서 다양한 스타일로 표현되었으며, 착장 형태도 속옷의 겉옷화, 겉옷 속의 장식적 요소로서의 코르셋 룩 그리고 겉옷 위에 대담하게 코르셋을 덧입는 새로운 착장법으로 속옷과 겉옷의 경계가 모호해졌음을 알 수 있다.

코르셋룩의 조형적 특성은 크게는 에로티시즘, 페티시즘, 해체주의, 미래주의로 구분되어졌다. 에로티시즘 이미지에서는 허리를 조여 가슴과 힙 등 성적 부위를 강조하고 섹시한 실루엣으로 표현하여 속으로 감추어져 있던 속옷에 개성 표현과 자기과시 등 표현적 기능이 강조되었다. 페티시즘 이미지에는 가죽, 플라스틱, PVC, 고무 등의 특이한 소재를 사용하였고, 레이스 달

린 코르셋, 가터 벨트, 스타킹 등으로 내의를 외의화한 소프트 페티시 스타일을 보여주었다. 또한 해체주의 이미지에서는 속옷이 겉옷화에 의한 노출과 은폐, 정숙과 비정숙성, 퇴폐적인 저속함과 고상한 양면가치가 발생하는 세기말적 해체주의 복식의 디자인을 보여주었다. 미래주의 이미지에서는 코르셋 형태에 비닐, 광택소재 뿐만 아니라 플라스틱, 금속 등의 인공적인 소재와 신소재를 사용해서 과학기술과 예술세계의 조화를 이루는 하이테크 감각의 보다 기능적이고 미래적 영감으로 표현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현대패션에서의 코르셋 룩은 시대적인 배경이 반영된 하나의 조류로서 새로운 디자인의 모티브로 활용되어짐과 동시에 향후 첨단소재와 가공기술이 접목되면서 더욱 새로운 감각의 한 단계 발전된 디자인의 영감으로 미래 복식에서의 중요한 경향을 차지하면서 지속적으로 발전되리라 본다. 이러한 현 시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발판으로 후속 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하는 바이다.

참고문헌

1) 이의정, 양숙희, 페티시즘, 경춘사, p. 85.
2) 정흥숙, 서양복식문화사, 교문사, 1998, p. 214.
3) 복식사전, 도서출판 라사라, 1991, p. 56.
4) Richard Marlkine & Harold Koda, Infra-Apparel, New-York :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1993, pp. 47-48.
5) 강정화, 현대패션에 표현된 페미니즘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6) 정흥숙, op. cit., p. 52.
7) 이의정・양숙희, op. cit., pp. 80~89.
8) 이의정・김소영, 교학연구사, 2001, p. 70.
9) 이의정・김소영, op. cit., p. 103.
10) Susan B. Kaisen, The Social Psychology of Clothing, N. Y. : Macmillan Publishing Co., 1985, p. 53.
11) 이의정・양숙희, op. cit., pp.105-108.
12) Richard Martin・Harold Koda, (1996), 인프라 의상(이선재역), 경춘사,(원본 1993년 발행), p. 50.
13) 채금석, 현대복식에 나타난 프랑스 표현주의, 숙명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 84.
14) 김덕자, 광고와 에로티시즘, 미진사, 1989, p. 60.
15) 정 현, 인체 속박형 의복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16) 이효진, 현대패션에 나타난 EROTICISM에관한 연구, 복식 23호, 1994, p. 116.
17) Steele・Valerie, Fashion and Eroticism,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1985, p. 199.
18) 이의정・양숙희, op. cit., p. 121.
19) Richard Martin・Harold Koda, op. cid., p. 17.
20) 장경주, 1980년대 패션에 나타난 포스트모더니즘의 조형적 특성, 경희대학교대학원, 1993, p. 56.
21) 오희선・박화순, 의상디자인, 경춘사, 1994, p. 224.
22) Thierry Mugler Fashion Fetish Fantasy, Marylou Luther, Thames and Hudson, 1998.
23) Collections, 02-03 A/W haute Couture
24) Visions of The Body ; Fashion or invisible corset, Kyoto : The National Museum of Modern Art, 1999.
25) 1000 Dessois : A Histiry of Lingerie, gilles N ret, Taschen, 1998.
26) Support and Seduction : A History of Corsets and Bras, B atrice fontanel, harry N. Abrams, Inc., Publishers, 1997.
27) Vanitas, Gianni Versace, Abbeville Press, 1994.

(2002년 11월 2일 접수, 2002년 11월 18일 채택)